

국힘 “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징계 부당” 직격

온라인 국민투표 서명운동 돌입
 차검사 ‘위법’ 즉시 철회 촉구

국민의힘이 1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반복적인 직무정지와 부당한 징계 시도를 규탄한다”며 법무부의 무기한 직무정지 징계 중단을 위한 온라인 국민 투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기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기 결국 ‘재판회소’를 만들 악종에 악’이라며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위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공개를 요구하며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라고 촉구했다.

특히 “재판은 형식이 아닌 법정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검사를 검박하고 징계는 몰아세워 재판의 균형을 흐트러는 일인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때 비로소 지켜진다”며 “이번 온라인 국민 투표 서명운동을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막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상용 검사는 정철호 장관을 향해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하다”며 항의를 촉구했다.

박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



내일 꼭 투표하세요!
 재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인천 마추루구 테미발거리에서 인천선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해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현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처분된다’는 법무부의 공문을 처음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번(4월9일)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 주셔서 정보공개청구를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인데 달라진 것이 없다”며 “무기한 직무정지가 추가되는 이유에(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도대체 이 직무정지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 법무부에 징계 청구된 ‘차백요구’ 등 혐의나 아닌 현재 인천지검에 추가 검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혐의”라고 따지면서 “이번 혐의가 근거가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차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되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범람의 유기적 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2개월이 청구된 사건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난다”며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검사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 양정(이 사건에서는 징계 2개월)을 사실상 상향으로 판단해왔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

을 고려한 ‘신규’ 직무정지가 된다”며 “그러나 그 검찰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 되어 징계결의가 될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청장의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근거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하냐”며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에게 직무정지 청문 회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께서는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정지 청문회를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명란 기자 joy@siminilbo.co.kr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된다”며 “그러나 그 검찰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 되어 징계결의가 될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청장의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근거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하냐”며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에게 직무정지 청문 회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께서는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정지 청문회를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명란 기자 joy@siminilbo.co.kr

‘민주당 全大 출마·6월 사임설’ 김민석 오늘 국무위원들과 만찬·고별 회동?

선거 결과따라 정태래 임지 영향
 ‘최대 격전지’ 서울·전북도 촉각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국무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하는데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사임을 할지에 대한 ‘고별 만찬’ 가능성에 힘이 실려 주목된다.

정태래 관계자는 1일 “내일 삼청동 총리 관공에서 김 총리 주재로 열리는 만찬 회동에 주요 내각 인원이 대부분 참석할 것 같다”면서 “김 총리가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고생한 국무위원들을 격려하고 소정의 선물을 마련한 자리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만찬 김 총리 거취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각에서 총리직을 사임하고 지난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는 대상이 꾸준히 제기된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김 총리는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총리 인선까지 미쳐야 한다.

당초에는 8월 정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태래 대표와 김 총리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15대로 압승하면 정 대표 연임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물론 서울과 특히 민주당 텃밭인 전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면 정 대표의 연임 기도가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대 적정직 무소속인 서울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원외 서울시장 후보가 패할 경우 ‘원외’ 선대위를 구성한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김민석 대안론이 급부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정당 대표 출마를 노리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차 대결시 정 대표의 어부지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명란 기자 joy@siminilbo.co.kr

경기도, 10월15·16일 ‘AI 콘텐츠 어워드’

내달 12일까지 출품작 접수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해 2026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드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7월 12일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10월15일부터 16일까지 롯데호텔 내마 수인(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대회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영화·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중편 경쟁 ▲단편 경쟁 ▲백남준 특별상 등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중편 경쟁 부문은 30분 이상 60분 미만의 작품, 단편 경쟁 부문은 30분 미만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장르에 대한 제한은 없다. 백남준 특별상 부문은 분량에 제한 없이 백남준 작가의 예술 세계를 AI 기반 창작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공모한다.

심사를 통해 중편 경쟁 및 단편 경쟁 부문에서는 총 18편의 본선 진출작과 9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백남준 특별상 부문에서는 2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총상금 규모는 700만 원이다.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은 오는 10월 중 2주간 진행되는 영화관 상영과 시상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명란 기자 mcs@siminilbo.co.kr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AI 투명성 표시 기준을 적용해 모든 출품작에 AI 생성 사실 표기를 의무화했다.

영상내 로고·워터마크 삽입, 시작·종료 자막 표기, 메타데이터 기반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디지털 워터마크 등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드는 2024년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에 이듬해로 시작했으며 2025년부터 명칭을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AI 필름 스튜디오 리더격으로 불리는 마테오 AI 스튜디오의 ‘마테오’가 2024년 첫 회 대상을 차지했으며, 2025년 대상작 ‘존재하지 않는 영화(The Cinema That Never Was)’는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드 대상 이후 18개의 영화제에서 추가로 수상하며 전세계 영화계의 큰 이목을 집중시켰다.

도 관계자는 “AI 기술이 창작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이번 어워드가 창작자들의 실험적 시도와 새로운 영상 문법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내·외 AI 콘텐츠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재능부 기자 gj749@siminilbo.co.kr

7일 ‘인천전통문화예술 대축제’

시, 국악가요·지역예술단 공연

인천시는 오는 7일 인천대공원 어울림마당에서 2026년 제6회 인천전통문화예술 대축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인천전통문화예술 대축제는 지역 전통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

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축제이다.

행사는 전통예술 경연대회 종합결선과 초청공연, 지역예술단 공연, 시민 체험행사로 구성돼 풍성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통예술 경연대회 종합결선에는 무용, 소리, 풍물, 타악 분야 예술을 통과한 8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참가팀들은 각 분야의 특색과 기량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전통예술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식전공연으로 인천도화농악보존회와 인천낭사당놀이보존회의 흥겨운 농악공연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서는 축하공연은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스타 국민인 박재의의 국악가요를 비롯해 소리를 국악관련악단의 국악관련악, 박은하 무용단의 태권무, 천산연희단의 줄타기 공연이 마련돼 있어 시민들에게 전통예술의 깊이와 감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진도북춤, 바구춤, 들름 등 지역예술단이 펼치는 공연을 통해 광소에 잘 알지 못했던 뛰어난 우리 문화에 예술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장 일일에서는 외출작가, 전매놀이, 심포·바나나리키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 등 모든 시민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아름다움과 흥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문화부 기자 mcs@siminilbo.co.kr

물로 만든 토마토

제24회 토마토마토 거리축제

물로 만든 토마토

서틀버스 운행

2026. 6.19(FRI) → 6.21(SUN)

문의 1522-0338 주최 **광주시** 주관 **GCCF** 광주시문화재단 토마토마토축제 운영위원회